

# 신시 '개천'에서 다시 '개천'으로

(開天)

대한사랑 '세계개천문화대축제'  
1억 한류팬 등 위한 온택트로 진행  
랜선 참여자 사전 신청, 상품도 지급



(사)대한사랑이 대전 STB상생방송 메인홀에서 '2020 세계개천문화대축제'를 온택트 빅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19 세계개천문화대축제' 현장이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진리로써 온 세상을 깨우치는 재세이화(在世理化)는 6천 년 전 환웅께서 배달(倍達)나라를 여신 건국이념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 땅에 인류역사와 문명을 펼치는 개천(開天)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한사랑 박석재 이사장의 일성이다. 우리 역사의 뿌리와 건국이념을 되새기고, 이를 나침반으로 21세기 지구촌 인류가 나아갈 상생(相生)의 길을 모색하는 국제행사가 열린다. 국내는 물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우리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쳐온 (사)대한사랑이 주최하는 '2020 세계개천문화대축제'가 바로 그것.

이번 행사는 국내는 물론 지구촌에 진출한 750만 재외동포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1억 명의 한류팬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대면하는 '온택트 빅이벤트'로 기획됐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대한사랑 관계자는 "K팝 K컬처 K푸드에서 최근의 K방역까지 지구촌 한류열풍의 에너지도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본바탕이 되어온 개천(開天)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

며 "기존의 대중문화 한류를 넘어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와 그 깊이를 세계에 알리고 확산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전체 2부로 구성됐으며, 한국과 한국인의 시원역사와 뿌리를 밝히고 그 건국이념과 개천정신을 돌아보는 '제1부 신시개천(神市開天)'을 말한다. 동방의 원형문화와 동학의 정신으로 지구촌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제2부 이제 다시 개천을 선포하

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한사랑 상임고문인 안경전(安耕田) STB상생방송 이사장의 특별강연과 함께 이날 축하 공연에는 국민 가수 김연자, 펑크록 밴드 크라이닉, 그리고 K-pop 댄스팀의 무대도 예정돼 있다.

대전 STB상생방송 메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한사랑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STB상생방송을 통해서도 생방송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종

과 이념, 정치와 종교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참여하는 축제로 영어와 일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6개 국어로 동시 통역이 진행되며, 당일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와 현장 랜선 참여를 희망하는 1,000여명에게 사전 접수 및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대전 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각종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가며 지정 좌석제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사랑이 주최, 주관하고 STB상생방송이 협찬하며 독립유공자유족회,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미주지역한인회총연합회, 유럽한인회총연합회, 아프리카·중동총연합회, (사)행촌학술문화진흥원,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재외동포신문, (사)한배달, 상생문화연구소, 한류열풍사랑, 한문화타임즈 등 국내외 단체가 후원한다. /김재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 '2020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101' 지역 관광 워크숍이 최근 고창군 힐링 카운터에서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

## 시간여행권역 관광·문화 생태계 반영 지역 활성화

전주대-문체부-지역관광문화발전협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101' 워크숍  
지속가능 관광 위한 DMO 협력안 제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 '2020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101' 지역 관광 워크숍이 최근 고창군 힐링 카운터에서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시간여행권역의 관광과 문화 생태계를 반영한 지역 활성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관광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전라북도 지자체 관광 업무 담당자와 협의회 회원 및 관광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8권역의 전고필 FMO이 '지역관광 생태계의 변화를 위한 남도맛기행(8권역)의 실험' 주제로 코로나가 관광산업에 가져온 변화를 설명하며 앞으로의 관광행태 전망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지역총연합회 연구소 전영철 소장은 '지역 DMO 성공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팬데믹과 지역관광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위한 DMO 협

력방안을 제안했다.

협의회 회원 및 관광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 주도 관광거버넌스 기구인 협의회의 역할과 민감 주도형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도모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인평 교수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관광문화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숙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전북도 관광문화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럼과 세미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같이 고민하고 교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백일장 당선자 시상식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최근 도내 거주 여성(결혼 이민 여성 포함)을 대

상으로 '제48회 전북여성백일장'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층 소소담에서 제48회 전북여성백일장'을 연 가운데 시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48회 전북여성백일장 글쓰기 특강은 양병호(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글쓰기는 여행이다'라는 주제로 온라인(ZOOM)으로 진행했다. 당일 공개된 화장, 비누 글씨(시제)에 맡겨 운문, 산문 2개 부문에서 한 부문을 선택해 글쓰기 기량을 발휘했다.

특히 행사 당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 센터 발관 및 각 강의실 등 2m 거리를 뒤 좌석배치 및 한 공간에 30명 미만으로 했다. 또한 참여자 발열체크, 공적마스크교체 착용, 강의실 소독과 개인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장원에 황주화, 손예진씨 등 당일 심사를 거쳐 총 1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당선자 시상식은 지난 6일 센터 1층 소소담(談)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양병호 교수는 "시는 서정 장르라는 명칭이 암시하듯, 자아의 내면을 응축해 리듬감 있게 표현 한 글이다"며 "이러한 수준을 획득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운문부 문 심사를 했고, 산문은 자신이 경험한 삶의 성찰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발견해 주제로 구현해 내는 힘이 있다."고 심사평을 했다. /장은성 기자

## 원년멤버 '슬기둥'의 '바람따라 완주따라'

완주풍류학교에서 풍류음악제 성료

원년멤버 '슬기둥'과 함께한 완주풍류 음악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7일 완주풍류학교에서 열린 원년멤버 '슬기둥'의 완주풍류 음악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슬기둥 원년멤버들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한 번 못쳐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슬기둥의 대표곡 '산도개비', '꽃분네야', '소금장수', '그대를 위해 부르는 노래', '그저너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쑥대머리', '상주합창'에 이어 완주풍류공예단의 '신밧놀이', '축제', '호남산조춤', '남도굿거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완주관광브랜드 슬로건인 '바람따라 완주따라, 완주'를 바탕으로 슬기둥이 직접 작사·작곡해 완주를 노래한 '바람따라 완주따라'를 초연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기 힘든 무대에 많은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공연은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관객 인원제한과 철저한 방역을 통해 모두



가 안전하게 음악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편, 완주풍류학교 소식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완주풍류학교'를 검색 후 친구추가 혹은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면 받아볼 수 있으며, 풍류학교 홈페이지(http://www.pungnyu.kr) 게시판을 통해 회원가입 할 경우 풍류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미리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원주=이종훈 기자

## 밴드하는 어르신들이 선보이는 '힐링 연주'

무주 주계음우회 버스킹 공연  
20일까지 6개 읍면 순회 무대



무주군 어르신 밴드동아리 주계음우회의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이 9일 무주군청 후정에서 개최돼 큰 호응을 얻었다.

6개 읍면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공연은 점심시간(12:00~13:00)을 이용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도련남', '안개' 등 총 14곡의 연주와 노래 무대를 선보였다.

관객들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공연을 만나 행복했다"며 "코로나19로 지

친 몸과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도 음악을 듣는 순간 다 잊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주계음우회는 1989년에 결성된 밴드동호회로 평균 연령 58세의 회원 22명이 색소폰과 드럼, 기타, 보컬 등을 맡아 연주하고 있다. 그간 반딧불축제에 비롯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경로잔치 등 지역의 크고 작은 무대에서 실력을 뽐내 왔다.

김내생 회장은 "주계음우회는 고향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는 주민들이 모여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찾아가는 가는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계음우회는 11일 적상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공연할 예정이며, 13일에는 설천면 라제동문, 16일에는 무주IC 만남의 광장, 18일에는 무풍면 상그리아 레스토랑 공연장, 20일에는 안성면 버스터미널에서 버스킹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연장 주변 소독과 관람객들의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 버스킹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